

‘무진기행’ 작가 김승옥의 특별한 그림展



◀‘순천만 대대포구’

내달 8~21일 서울 혜화아트센터



대학생때 시사만화 게재... 뇌졸중 투병중

서울·순천 오가며 그림 작업... 화집도 발간

29일까지 클라우드 펀딩 통한 치료비 후원도



‘운림산방’

소설 ‘무진기행’은 ‘1960년대 한국 문학의 가장 뛰어난 미학적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 작품이다. 작가 김승옥 특유의 감수성이 잘 반영된 일인칭 소설로, 섬세한 문장과 세련된 문체가 압권을 이룬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감수성의 작가’ 김승옥(75).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2003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당시 오랜 친구였던 이문구 작가의 별세 소식을 듣고 집을 나서다 쓰러진 것이다.

그 일로 그는, 작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언어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당시 세종대 국문과 교수였던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치료에 전념한다. 일상적인 거동을 할 수는 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다. 필담으로 (그것도 명사 위주로) 소통을 할 정도로 제한적인 표현만 가능하다.

현재 작가는 ‘무진기행’의 무대인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순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작가는 이후 순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불문과에 진학했다) 지난 2010년 순천문화관에 김승옥관이 개관하면서 틈틈이 이곳에 머물며 문학관을 찾는 독자들을 만난다.

그런 김 작가가 내달(8일~21일) 서울에서 그림전을 열고 화집을 출간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종로구 혜화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그가 머무는 순천문화관 인근의 풍경과 원도, 강진 등 남도의 풍광을 담은 수채화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될 그림들은 김 작가의 작품만큼이나 감성적이며 따스하다. 글과 그림이 닿았다는 것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강진의 영랑생가, 다산초당 그림은 소박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넘친다.

순천만 대대포 갈대밭은 그의 작품 ‘무진기행’에 등장하는 배경만큼이나 쓸쓸하면서도 낭만적이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소설의 주인공 공 윤희중이 걸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된 것은 출판사 21세기 북스 함성주 씨의 도움이 있었다. 함 씨는 “지인

인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 집에 들렀다 김승옥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됐다”며 “비록 화가가 그린 작품은 아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 화집 출간과 전시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 씨는 “40여 년 전 김승옥 선생님을 뵈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선생님은 여러 문인들 초상화를 그려주곤 했다. 당시에 내 초상화도 그려주셨는데 당시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생님은 어린 시절 순천에서 일본인 선교사에게 그림을 배웠다”면서 “알려진 바로는 대학생 때 서울경제신문에 시사만화 ‘파고다 영감’을 신기도 했다”고 말했다.

함 씨는 이번 전시회 마련과 김 작가의 치료비 후원을 위한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다음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670여 명이 참여했으며 4000만원 가까이 모금됐다고 한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이들은 아마도 ‘무진’과 그곳의 명물 ‘안개’로 대변되는 ‘무진기행’을 읽었던 독자일 것이다. 작품의 분위기를 견인하는 상징적인 장치가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다는 의미다. 김승옥이 그려내고 있는 무진과 그곳에 연한 바다는 독자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훈 작가는 ‘작가와 함께 무진을 찾아가다’라는 글에서 “김승옥의 바다는 때로는 카뮈의 에세이들이 그려내는 알제리의 바다처럼, 생(生)의 작업감에 가득 찬 바다이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도시(都市=현실)와의 불화의 관계 위에서 설정된 자폐(自閉)의 공간이다”고 평한 바 있다.

한편 김승옥 작가의 소설은 최근이 불기 시작한 필사 열풍과 맞물려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시대를 넘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지막으로 소설 창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함성주 씨는 “선생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뒤로 창작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전시회와 화집 출간을 계기로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봄의 제전 G.’ 공연

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 제작... 23~24일 문예회관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공동 제작한 ‘봄의 제전 G.’가 23~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시민들을 찾아온다.

‘봄의 제전 G.’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시립발레단체와 진행하는 첫 번째 공동제작 작품으로 광주시립발레단 창단 40주년 기념작이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바탕으로 니진스키가 안무하며 1913년 파리 초연 당시 슬한 화제를 낳았던 ‘봄의 제전’을 ‘씻김굿’의 예술적 형식미와 감성을 담아 재해석했다.

이 작품은 2막으로 나뉘어 사랑하는 남녀가 인신공희(人身供犧, 제사에서 인간을 공양의 희생물로 신에게 바친 일)로 인해 겪는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표현한 드라마 발레다. 원시적인 문화와 풍습 속에서 벌어지는 이기적인 욕망과 진정한 사랑, 희생을 담았다.

시립발레단 신승현을 비롯해 한국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엄재용, ‘댄싱9’ 발레리노 윤전



일씨가 출연한다. 연출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출신 이정운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S석 2만원·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he way to go Forward-Love River’

로터스갤러리 청년작가 서영기 개인전

7월 6일까지

2016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서영기 작가가 ‘The way to go Forward(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7월6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서 작가는 작품에 본인 모습을 투영시킨다. 본인이 처한 불안정한 환경과 마음 속 모순을 부유물에 대비시킨다. 전시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작품 ‘The way to go Forward-Love River’는 검은물에 죽은 물고기, 생수병, 사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떠다닌다. 작가가 지난해 대안 가오송 레지던시에 참여했을 때 본 강을 표현한 그림이다. 멀리서 보면 어두운 밤 하늘 속 별빛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약취가 풍길 것 같은 더러운 강이다. 서 작가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본인과 인간사회를 비판한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서씨는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2011), 서울미술관 미술대전 우수상(2009)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1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40주년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적용율을 중대!!
|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 PTB5000 |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음식점,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념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은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운영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062-952-6633 | **익산공점**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정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b4000@hanmail.net

광주·전남 **프리모** 남가발
기능장1호

시술전 | 시술후 | 시술전 |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1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D) **대산프리모** 남가

대구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1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남가발